

■ 민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제목소리 내기

운신 폭 넓히고 黨 체질개선 동력될까

박주선·최인기·박지원·김효석 의원 등

지도부 무기력증에 대내외 해법 제시

18대 국회 들어 지역 현안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별다른 정치적 목소리도 내지 못해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비난을 받아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들어서서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지역 의원들의 자세 변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이후 과감한 비전 제시로 정치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정치적 리더로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읽히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우선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정세균 대표에 정면으로 맞서며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진영 통합론과 관련, “통합의 대상은 모든 정치세력이 망라돼야 하고, 동시에 다자간의 대화를 통한 빠른 시일 내 무조건 통합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세균 대표가 “일단 진노세력이 우선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의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의 전문가 집단 순이 될 것”이라고 밝힌 단계적 통합론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히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정 대표와 정 의원이 어떤 목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자유이고 정치적 권리이지만 특정인의 경쟁 때문에 복당이 된다. 안 된다 식의 논의가 대선 안 된다”며 정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전해진 DJ의 유언과 관련, 박 의원은 “그 누구도 포스트 DJ가 될 수 없고 민주당 전체가 ‘포스트 DJ’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인기 의원도 최근 지역 의원들과의 회동을 주도하며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현안 문제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물론 일부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한다며 지역 의원들이 단합,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 의원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의 회동을 주선, “의원총회 이전에 지역 의원들이 모여 확실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지역 의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는 최 의원은 “민주당의 핵심은 광주·전남”이라며 “그동안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DJ 서거 이후, 박지원 의원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전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스타로 부상한데 이어 DJ 국장 기간 동안 탁월한 조정력을 발휘, ‘역시, 박지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도 ‘호통’도 마다않는 강단을 보이면서 정치적 역량을 넓

히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지역의원들의 태도변화가 개인의 운신 폭을 넓히려는 단편적인 현상에 그칠 것인지, 당의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동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부기관 원안대로 ‘행정도시’ 이전해야

건설행을 방문해 정부기관 이전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대표가 9일 오전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연행뉴스

‘유화 리더십’으로 쟁점법안 점점 찾나

■ ‘정몽준-정세균 체제’ 여야 관계 훈풍 관심

한나라당의 선장 교체가 막막한 여야 관계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정몽준(鄭夢準·MJ)-정세균(丁世均) 여야 대표 체제가 여야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대표 모두 같은 정초임을 떠나 대기업 출신이고 대인 관계에 있어 온건한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닮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했고 나이도 비슷하다.

나이는 정세균 대표가 50년생으로 한

살 위이고 국회 진출 횟수는 정몽준 대표가 6선으로 4선인 정세균 대표보다 많다.

정몽준 대표의 취임인사 형식으로 지난 8일 이뤄진 첫 만남은 두 사람의 이러한 ‘코드’를 반영하듯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몽준 대표가 ‘선배님’이라고 자세를 낮추자 정 대표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정몽준 대표는 지난 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야당을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여야 관계에 변화를 예고하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도 불사했던 여야 경색 국면이 조금씩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이런 배경에는 정몽준 대표가 예비 대권 주자로서, 원외의 한계를 안고 있던 박희태 전 대표와 달리 당청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정몽준 대표는 “국회는 행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다”고 했고, 정세균 대표도 9일 “여당 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청와대로부터 독립해 그 위상에 걸맞은 당 운영을 한다면 우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여야는 당대표 회동 후 하루만인 9일 국정감사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국회를 정상화했다.

일각에선 “할 말은 하겠다”는 ‘MJ 효과’가 더욱 뚜렷해지면 여야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정치개혁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선부론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부론 기대라는 관측도 있다. 정몽준 대표가 여당의 선장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여야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더욱이 두 사람 모두 대권 예비 주자란 점에서 양보 없는 경쟁도 불가피하다.

당장 정세균 대표로서는 갈수록 속도가 붙는 여권의 친서민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몽준 대표의 경우 대권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달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 지역 예산 안주면 못 나갑니다”

이윤석 의원, 부처 돌며 예산 투쟁 화제

광주·전남지역의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민주당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의 ‘전력투구식’ 예산 확보 활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윤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선정됐다. 국회 관행상 예결위원을 2년 연속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원은 무소속 몫이었으며 민주당에 입당했으니 다시 예결위원을 맡아도 된다며 당 지도부를 설득, 결국 뜻(?)을 이뤄냈다.

특히,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이 의원의 몸을 사리지 않는 접근방식은 부처 장관들의 허를 내두르게 만들고 있다. 지역 특산품인 소금과 양파, 여기에 민어까지 장관실에 내려놓고 예산 확보를 부탁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대담이 나올 때 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다.

여기에 예산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기만



하한 수시로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 “제발, 알겠으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장관이 읊소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또한,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는 지역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자 당시 한나라당 이한구 예결위 위원에게 “예산을 삭감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행사, 결국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활동은 현경~해제 장관들의 허를 내두르게 만들고 있다. 지역 특산품인 소금과 양파, 여기에 민어까지 장관실에 내려놓고 예산 확보를 부탁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대담이 나올 때 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각오로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는 민주당 예결위원이 됐으니 더욱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운찬 후보자 ‘논문 이중 게재’ 논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도 논문 이중 게재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옮겨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것.

8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인 2000년 타 대학 교수 3명과 함께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 푸리에 플렉시블 비용함수의 분석을 중심으로’란 논문을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1년 뒤 같은 저자들과 함께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Korea’s Banking Industry : Evidence

from the Fourier Flexible Form’이란 제목의 영어 논문을 다른 영자 학술지인 ‘한국경제저널(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에 실었다.

이들 논문은 제목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별도의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실려 이중 게재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한글 논문을 영문으로 게재하고 싶어하는 학술지 측 요구에 응해서 한 것”이라며 “한글로 쓴 논문과 영문으로 쓴 논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 풍조였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검, 박연차 징역 4년 벌금 300억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탈세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했고, 최근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탈루 세금을 뒤통게나마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의 결심공판은 지난 7월7일 열렸지만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남아 있어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서면으로 재판부에

구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구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 관례에서 벗어난 것으로, 당시 범조계에서는 박 전 회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통상의 경우보다 낮춰 할 경우 비판 여론이 일 수 있어 공개되지 않는 서면 구형을 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총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재판 전 전 농협 회장에 휴캠프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넨 혐의(탈세, 뇌물공여)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정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행뉴스

2010년 신바람나는 공무원합격 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 www.hanbitgosi.co.kr

7·9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소방직 전문학원

합격률 100% 보장

소방직 특강기 무제한

합격하면 100만원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교정직특채

시험: 10월 18일, 모집 300명

합격률 100% 보장

합격하면 100만원

한빛교정직특채

일야간반

합격률 100% 보장

합격하면 100만원

한빛일야간반

한빛고시학원

합격률 100% 보장

합격하면 100만원

한빛고시학원